

국내 아이콘 45인이 추천하는 넷플릭스 최다 추천작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

# 농구 황제의 빛나던 순간 다시한번

시카고 불스와 함께 했던 1990년대 황금기 담자

배구선수 김연경부터 가수 지코, 코미디언 박나래, 작가 조승연, 번역가 황석희 등 45인의 저명인사가 넷플릭스 작품을 추천했다. 넷플릭스는 매주 목요일 공식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공개한 '마이 넷플릭스(MY NETFLIX)' 추천작 리스트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9번의 포스트로 완료한 추천작 리스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부터 디자이너, 코미디언, 뮤지션,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콘들이 자신에게 영감을 준 넷플릭스 작품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숨겨진 명작들을 소개한 특별 기획이다.

김연경, 박나래, 지코를 비롯해 크리에이터 이사배와 이은재(재재), 번역가 달시 파켓과 황석희, 작가 조승연, 방송인 알베르토 몬티, 뮤지션 슬라, 미술감독 이후경, 패션 디자이너 민주킴 등을 비롯한 총 45인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했고, 총 70여 개의 넷플릭스 작품들이 언급됐다.

가장 많은 이들의 추천을 받은 작품은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다. 김연경과 아울러서 배성재 등 스포츠 관련 인사는 물론

포토그래퍼 목정욱, 뮤지션 미미손, 건축가 유현준까지 분야를 막론한 많은 이들의 추천을 받았다.

미미손은 "마이클 조던의 다큐를 볼 수 있게 해줘서 넷플릭스에 감사하다. 넷플릭스에는 매우 좋은 다큐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고, 이 작품도 그중 하나다"며 강력 추천했다.

최고의 승부사이자 농구의 전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가 함께했던 1990년대 황금기를 담은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는 500여 시간의 미공개 영상을 바탕으로 마이클 조던이 가장 빛나던 시즌을 재조명한다.

대담하고 과격적인 이야기의 엔솔러지 시리즈를 추천하는 이들도 많았다. 디자이너 민주킴, 뮤지션 다운, 크리에이터 장빠쭈, 박나래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다양한 기술이 인간의 욕망을 실현해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어두운 상상력으로 풀어낸 SF 시리즈 '블랙 미러'를 추천했다.

박나래는 "블랙 코미디 같으면서도 스텔러물 같다. 소름 끼치는 상상력에 허를 때를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 포스터 배경.

수밖에 없었다. 허무맹랑한 SF 물이 아니라 더 무섭게 느껴졌던 작품"이라는 추천사로 '블랙 미러'의 매력 포인트를 짚었다.

사람과 죽을 그리고 로봇을 다룬 신선한 주제가 돋보이는 '러브, 데스 + 로봇'은 미술감독 이후경, 포토그래퍼 목정욱, 아울러서 배성재, 시각효과 감독 손승현이 추천했다.

'러브, 데스 + 로봇'을 6회 정주행했다는

배성재는 "상상력이 고갈됐을 때 '블랙 미러' 보다 더한 디스토피아가 궁금할 때 정주행한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진기하고 경이로운 자연을 탐사하는 다큐멘터리 '우리의 지구'와 미국 인디애나주의 호킨스에 사는 단짝 친구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들을 좇는 미스터리 스릴러 '기묘한 이야기'도 추천작 리스트에 포함됐다.

/뉴시스

## 우사인 볼트, 코로나19 검사 받고 격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3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중이다.

볼트는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영상을 게시하고 "지난 22일(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방금 잠에서 깨어났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가 확진자라는 게시물을 확인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볼트는 지난 21일 34번째 생일을 맞아 자메이카에서 대규모 야외 파티를 열었다. SNS에는 당시 파티 참가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오며 큰 비난을 샀다.

그의 생일 파티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의 라힘 스텔링, 크리켓의 선수 크리스 게이일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트는 "일을 나가야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은 것 뿐"이라며 "현재는 무증상으로, 자가격리하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자메이카 현지 라디오 방송은 "볼트가 며칠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하며 그의 확진 소식을 보도했다. 자메이카는 약 3000만명이 거주하는 국가로 지금까지 1413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수도인 킹스턴에서 지난 2주 동안 410건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은퇴한 볼트는 올림픽에서만 총 8승을 거둔 단거리 육상 선수다. 100m(9.58초)와 200m(19.19초) 세계 신기록을 보유 중이기도 하다.

그는 은퇴 이후 축구 선수로 전향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공식 접촉을 하던 호주 프로 축구팀과의 계약이 불발됐다.

/뉴시스

## 박인비, 女골프 세계랭킹 8위 ↑

도쿄올림픽 출전에도 '청신호'

'골프 여제' 박인비가 도쿄올림픽 진출권 기준에 안착했다.

박인비는 25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4.88점으로 8위에 올랐다. 지난주 대비 순위를 4계단 끌어올리면서 톱10에 진입했다.

도쿄올림픽 출전에도 청신호를 켜다. 올림픽 골프에는 남자와 여자 각각 60명이 출전한다.

국가당 2명 출전이 원칙이지만, 세계 랭킹 15위 이내 경우 국가당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고진영(1위), 박성현(3위), 김세영(6위)이 수개월 간 상위권을 유지 중인 가운데 10위권에 머무르던 박인비가 김효주(10위), 이정은(11

위), 유소연(13위)을 제치고 한국 선수 중 4위로 뛰어올랐다.

6개월의 공백을 깨고 지난주 나선 AIG여자오픈에서 단종 4위를 차지한 것이 순위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자 골프 출전권은 2021년 6월28일 랭킹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박인비는 1900년 파리올림픽 이후 116년 만에 다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도쿄 대회에서는 2연패를 노린다.

상위 4명의 선수들은 순위 변동없이 자리를 지켰다. 호주 교포 이민지가 3계단 오른 5위에 안착했다. AIG여자오픈 우승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소피아 포포프(독일)는 무려 280계단이나 오른 24위를 차지했다.

/뉴시스

## 류현진, 28일 보스턴전 출격... 3승 재도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시즌 3승에 재도전한다.

캐나다매체 스포츠넷은 류현진이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 세일런필드에서 열리는 2020 메이저리그(MLB) 보스턴과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는 오전 7시37분 시작한다.

토론토 이적 첫 해인 올 시즌 류현진은 6경기에서 2승1패 평균자책점 3.19를 기록 중이다.

첫 두 경기에서 5이닝도 버티지 못한 채 난타를 당하며 평균자책점이 8.00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구위를 회복하면서 팀이 원했던 모습을 맘껏 뽐내고 있다.

특히 18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6이닝 4피안타 1실점)과 23일 탬파베이 레이스전(5이닝 3피안타 1실점)에서는 사사구를 한 개도 허용하지 않는 칼날 제구력을 뽐냈다.

보스턴이 전통의 강호이지만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다. 보스턴은 20경기에서 9승20패에 그쳐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베테랑 1루수 미치 모어랜드(타율 0.340 7홈런



18타점)와 윌스타 출신 내야수 잼머 보가츠(타율 0.271 6홈런 17타점) 등이 경계 대상이다.

류현진은 다저스 시절 보스턴전에 두 차례 선발 등판, 승리 없이 1패 평균자책점 3.00(12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토론토 이적 후 보스턴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